

광주 아파트 높이 ‘지역별 맞춤형’ 조정한다

아파트 30층·주상복합 40층 → 지형·입지·환경 고려
 이용성 시장 “합리적 기준 필요...곳에 따라 층수 결정”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된 광주지역 아파트 고도(高度)가 지역별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14일 출입기자 차담회를 통해 “획일적인 층수제한 기준을 지역별 특성, 즉 지형과 입지, 주변 환경,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담당부서에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등산 조망권의 경우 “중요 변수 중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정 사안만이 아닌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행정적 판단으로 읽힌다.

예(例)도 제시했다. “아파트는 높이가 중요한데, 어떤 것은 이미 해발 200m에서 짓고, 어떤 것은 해발 0인데 똑같이 30층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스카이라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며 “또 무등산과 전혀 관련성 없는 외곽이나 무등산 인근, 도심에 있는 것과 바깥(변두리)에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만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곳은 30층 이하로 강화되고, 어떤 곳은 더 높게 지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합리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고도 설명했다. 단,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 규제’는 대원칙임을 전제로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 비중이 크고 회색도시고 바닷길도 다 막아버리고 무등산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식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0·40층 규제를 규제에 나선 것이고,

2018년 7월 취임 이후 옛 호남대 부지, 쌍암동, 화정아이파크 등 이슈 지역마다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내 강력한 규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낸 만큼 이제 지속가능성과 합리성 보완하는, 예컨대 특정지역의 조망권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지정한 뒤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를 제한하는 ‘뷰콘(View-Corn)’ 방식을 빌려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동(洞), 마을별 기준과 신규 아파트 단지별로 여러 복합변수를 어떻게 적용할 지, 종전 규제가 적용된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조율해 나갈 지 등은 과제로 남게 됐다. **박남진기자**



현대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라인에서 캐스퍼 출고를 위한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GGM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 ‘현대차 캐스퍼’ 누적 생산 2만대 출시 6개월 만...올 목표 달성 무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양산을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누적 생산 2만대를 돌파했다.

14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15일 첫차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 목표한 1만2000대 생산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1일 누적 생산 2만대(2만343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4월부터는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현재 22대 수준에서 25.7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어서 올해 생산 목표인 5만대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간당 생산 대수가 25.7대에 이르른 월간 생산대수는 현재 3900대에서 45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생산 대수 증가는 GGM이 지난 2월 16일부터 생산 현장에 기술직 신입사원 70여명 등 총 8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인력 확충을 시행한데 이어 기존 기술 인력의 숙련도 향상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노력은 GGM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 생산하는 캐스퍼 품질과 직결됐다.

GGM은 지난해 말 이미 캐스퍼 생산합격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 품질을 확보했다.

이같은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품 수급난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GGM은 지난 2월 16일 80여명 신규 채용까지 합산해 현재까지 일자리 660여개를 창출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2교대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분사 근무 인력은 1000여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이슬기자**

전남도, 농촌 외국인근로자 1230명 확보...전년보다 3.6배 ↑

14개 시군 배정...농번기 이전 입국시켜 인력난 해소

전남도가 봄철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14개 시군 433농어가 1230명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부

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어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89개 시군에 1만 23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 343명의 3.6배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계절근로제에 올해 대폭 개선·시행돼 소규모 농가에서도 1주일 단위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완도 459명, 해남 134명, 담양 134명, 함평 111명, 진도 104명, 영암 73명, 고흥 47명, 강진 44명, 광양 31명, 장성 28명, 장흥

26명, 무안 25명, 곡성 8명, 나주 6명 등이다.

인력 배정을 받은 시군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선도적으로 베트남, 네팔, 필리핀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한 해남, 고흥, 무안 등 4개 군은 해외 지자체와 함께 계절근로자 선발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주, 강진 등 4개 시군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4월 입국을 추진하는 등 봄철 농번기 고용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

담양, 고흥, 해남, 영암, 무안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코로나19 확진 여부 확인 소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해 고용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는 지자체의 외국인 고용 및 입국 지원 절차를 안내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밖에 곡성, 장성, 진도는 유학생이나 방문취업, 문화예술·구직 체류 자격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가 고용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농가 중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기회를 잡으면 된다. 시군 담당부서의 행정지원을 받아 오는 5-6월에 법무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의 곳곳에서 자가격리 및 입국제한조치 완화 움직임을 보여 계절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운영 등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을 구축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조금이라도 쌀 때 넣어야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앞물주유소가 붐비고 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